

개 요			
일 시	○ 2018년 5월 28일 (월) 오후 14:00시	기록자	정진희
장 소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 장(위원장): 이금용</li> <li>○ 부회장: 강기용, 이흥선, 조제숙, 홍석빈, 용수영</li> <li>○ 이 사: 김병순, 김성영, 김승돈, 문민자, 박 철, 방정원, 서호석, 신원철, 신찬기, 심재복, 유경자, 이석기, 정장수, 최동표, 김대광, 이효원</li> <li>○ 감 사: 류건옥, 성해용</li> <li>○ 사무처: 이경호</li> </ul>		
회 의 록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개정</li> <li>2. 사무처 규정 개정</li> <li>3. 위원회 규정</li> <li>4. 위원회 여비 규정</li> <li>5. 위원회 축소</li> <li>6. 3급 지도자 시·도 위임</li> <li>7. 강사 자격증 신설</li> <li>8. 대회 신청 인준</li> <li>9. 기타</li> </ol>		
회 의 록			
1. 성원보고			
<p>▶이경호 사무처장 : 지금부터 2018 제1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류건옥, 성해용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p> <p>(임원소개 생략)</p> <p>▶이경호 사무처장 : 오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이금용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p>▶이금용 의장 : 김승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한 것은 아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고 돈이 없다 보니 이틀 전부터 이사님들께 떳떳하게 헤드릴까 생각했는데 여의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협회가 발전되고 도약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로</p>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이사회가 진행방법이 서툴고 어색해도 이해해주시고 이사님들이 좋게 안 봐주시고 얼굴을 안 피시면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힘드셔도 참아주시고 파크골프는 아직은 미완성 단계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고 봉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오늘 이사회는 1개의 보고와 8개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토의 안건을 토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파크골프협회 2018년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오후 02:00 시 현재 재적 이사 29명 중 2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정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이금용 의장

: 29명 중 부회장이 7명입니다. 사외이사가 5명입니다. 그리고 이사님들께서 16명까지 총 29명입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정원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대한파크골프협회 2018년도 임시이사회가 정원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탕! 탕! 탕!

2. 국민의례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애국가 생략)

3. 개회선언 및 개회사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은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이금용 의장

: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 봉사하면서 힘들게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크골프가 저도 2017년도 11월 1일에 회장이 되어 아직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이틀 내려갔습니다. 박경래 전남 회장님 아버지 장례식 때 가고 5월 19일에 목포 김청수 부회장님 대회에 갔다가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파크골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 역량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각 시도 회원 또는 시도 회장님들께 날마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사님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부터 1월도 밖으로 새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지도 결재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우리 협회가 잘 되어가기 위해서는 아끼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회장님 말씀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대광 이사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대구가 회원을 155명 등록한 것을 봤는데 이 사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을 하는 것인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사무처장이 이사분들한테 카톡을 보내던지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셔야지 협회에 가서 이야기하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사항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건보고 및 심의 의결

▶이경호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차이사회 초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오후 02:00 정기이사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 이사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된 사항입니다. 감사보고, 2017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2017년 세입·세출 결산이 있었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계획,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원관리규정 개정 및 위원회 위원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국대회 유치 확정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권은택 사무처장 징계에 관한 위원회 회부 건이 논의되었으며 기타도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차이사회 초록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으로 2017년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성해용 회계 감사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용 회계감사

: 저는 3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성해용입니다. 정기회계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3월 5일에 인준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감사 개요와 같이 3월 29~30일, 4월 18-20일에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와서는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 상당히 오해가 회계, 행정을 구분해서 해달라고 했지만 요즘 회계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이것은 행정이라고 구분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자료협조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사서류도 볼 수가 없고 안 보여주니 마침 그때 3월 30일에 서울역에서 지역 회장들이 업무에 협조가 안 되는 회장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 서로 소통 부재입니다.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니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비방을 하고 그거는 회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기구는 회장 혼자서의 독단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갑론을박을 토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을 해보고 건의사항이 뭔지 이야기를 해보라 해서 회장님을 뵈고 인사문제, 이사 임원 문제 등 그날 하는 것을 보고 그날 이후에는 적극 협조를 하자고 하고 포용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다음에 올라와서 감사를 보니 어느 조직이든지 정관에 정해진 조항 그것만 충실하면 모범이 되는 이사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 첫째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 감사님도 계시지만 행정과 회계가 겹쳐지는 부분은 차차 하고 한술에 배부른 거는 없다. 개선해야 하겠다. 그다음은 이금용 회장님께서서는 적을 만들지 말고 소통을 해라. 그것이 능사다. 그 외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은즉슨 체육회에서는 곧 관리종목단체로 갈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일 전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이 파크골프입니다. 감사원에 진정 들어오고 특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정관 47조 규정에 보면 회계감사는 연 1회 해야 한다는 내용과 협회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체육회에서 의뢰한 감사의견이 2017년 2월 19일 체육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의견 거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회계감사 의견 중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회계법인에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체육회 감사관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종목과 3년에 걸쳐서 계약하는데 1억 6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 목표 사업수행내역이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장부가 안 되어 있으니 의견을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 산하기관에 한 내용을 보니 90% 이상이 아직도 복식부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지보고 정부에 지원금 받으면 정산보고를 내고 하는 것이 전부 수지 보고형태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의견거절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직원들이 좀 오래된 황차장이 8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지금 있는 여직원은 이제 수습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사정을 보고 누가 보면 늦게 생긴 파크골프협회가 장부도 없고 엉망진창이라는 평가를 받은 상태에 각종 진정이 올라오고 체육회 입장에서는 보니 그 전에 김세규 회장이 중간에 그렇게 되고 문제관리종목단체라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체육회에서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후속 조치이행사항으로 신한회계법인 김윤모 회계사와 연결되어 협회를 손익계산 및 재정상태를 볼 수 있는 회계시스템으로 우리가 지불해서 고쳐주겠다 5월9일부터 6월22일까지 그래서 김윤모 회계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거절을 받도록 방치를 했느냐 물론 직원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변을 못 했습니다. 체육회에 처장과 가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는 종목단체인지 하다 보니 체육회에서 하는 우리회계법인에서도 우리는 2016년 5월 말일에 정식종목단체로 되었다. 또 체육회 감사분들과 대화를 할 때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했지 단지 수지 회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다고 하니 다음엔 김윤모회계사도 만났는데 하려면 알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여차피 우리가 정확하게 회계는 단식과 복식부기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부도 5년까지는 수지 회계를 했습니다만 복식부기를 예로 들면 우리가 1년 치가 아니고 오래 쓸 자재를 1억 원 치를 샀다고 하면 그러면 단식부기에서는 수입 예를 들면 회비 받은 것이겠죠. 1억 원을 샀으면 1억 원 지출 이것이 수지 회계인데 복식부기 회계는 1억이 나간 것이 한 달에 천만 원 쓸 것을 한 번에 사면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샀다 일억 원치를 되었을 경우에 연말에 가면 12달 치 외에 남는 것은 자산으로 기입해줘야 합니다. 이런 원칙적인 회계 비용은 1년 치면 천만 원만 해야지 1억 비용을 하니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목록이라는 것은 단식부기를 할 때만 필요합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건물 장치 등 나오면 명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식부기를 하는 기관에서는 재산목록을 아까 같이 재고가 1억이 넘었으면 그것을 재산목록에 넣어 줘야지 깔끔한 회계가 된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두 번째 사항도 정관 제40조에 보면 대한체육회 재산목록 제출 보고의무를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비용이 사단법인에는 기본재산, 운영재산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목록리스트를 찾아보니 캠퍼를 천만 원을 주고 샀다면 구입가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계를 하려면 천만 원에 대한 비용 배분을 내고 보통 5~7년인데 이렇게 비용 배분을 위해서 재산목록을 이름만 적어 놓고 그것을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수집할 때 얼마에 평가를 받아서 했는지 같은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경영공시 의무가 제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운영에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가 무엇이나 하면 이사회, 총회 의사록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감사보고서 이런 중요정보를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으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이사회 그 후에 대의원총회 의사록 2017년 6월 22일자로 오늘 공시한 것을 보니까 김세규 회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행했습니다.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구에서 왜 155명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대구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지금 행정 사무처리 능력이 전부 관리하다 보면 자료를 알고 해야지 되는데 제가 첫날 감사를 보고 현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현황판은 항시 기존에 일자 그때 통계가 맞아야 회비, 회원등록 등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미비해서 빨리 고쳐야 한다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공시하시고 공시의무가 대한체육회 관리종목단체 공시란 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이사회, 대의원총회 의사록이 전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정되었구나 등 오해를 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정관 5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홈페이지 및 체육회 단체종목 공시란에 올려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김윤모회계사한테 검토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무과장 퇴직금 14,787,931원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또 매월 퇴직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신한회계법인에서 직원들이 이번기회에 사무능력 숙지를 충분히 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성해용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본인을 밝히시고 회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사

: 네

▶이경호 사무처장

: 의장님 안건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안건심의에 대한 의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동의 및 제창으로 의결하며 두 개 이상 의견에 대한 안건은 거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재청합니다.

▶이금용 의장

: 동의와 제창이 있었으므로 안건 의결 방법은 동의 및 제창으로 의결하며 두 개 이상 의견에 대한 안건거수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은 회순에 의하여 의장님께서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협회의 정관 개정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유인물 2p를 보시면 협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여파크골프협회도 거기에 준용하여 시행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 5조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고 중복된 것은 오류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왼쪽은 현행 중간은 개정안 우측은 왜 개정되는지에 내용입니다.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의원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번 항은 이사의 중원, 임원은 변경에 따라서 수정이 되며 저희는 이사가 29명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8조 개정안을 보시면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안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사님들께서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사

: 네

▶이금융 의장

:최동표 이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표 이사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은 대한체육회 상위제도에 관련된 개정된 것이기에 저희들이 문구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10p에 49조입니다. 사무처 문구를 수정하신 의미가 있습니까? 파크골프 처장이라는 직함이 이상해서요. 굳이 안 바뀌도 될 내용을 바꾸는 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협회 정관을 개정할 때는 체육회 정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굳이 요것을 바꾸는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호석 이사

: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황재명 사무차장

: 못 고칩니다. 이것은 종목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금융 의장

: 파크골프처장이라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겁니까?

▶황재명 사무차장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는데 땡땡 종목이라고 되어 있기에 종목을 써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금융 의장

: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

:네 없습니다.

▶이금융 의장

: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이금융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이금용 의장

: 동의와 제청으로 협회 정관 개정 건에 대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성해용 감사

: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보고만 하고 최종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하는거죠?

▶황재명 사무차장

: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류건옥 감사

: 정관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 온 것 이죠? 이사회를 통과하고 대의원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다음 안건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사무처 규정 개정을 심의하겠습니다.

▶최동표 이사

: 지금 하는 것이 개정 입니까? 제정입니까?

▶이금용 의장

: 개정입니다.

▶최동표 이사

: 제정 아닙니까?

▶이경호 사무처장

: 아닙니다. 그전에 일부는 있었고 직제규정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금용 의장

: 처장은 규정 개정 건을 설명 바랍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본 협회에는 기존에 승인된 규정이 사무처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회원관리규정, 회자선거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이외에 사무처에 필요한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그럼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직제규정은 내용을 보시면 별표2를 보시면 왜 직원을 5명으로 했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현행은 사무처 직원이 4명입니다. 하지만 사무처가 커졌을 때를 감안해서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더 커지면 인원이 보강될 수도 있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인사규정 또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최동표 이사

: 기구표에 회장님 밑에 처장, 처장 밑에 사무처가 기구표가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칭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류건옥 감사

: 기구표에 사무처가 먼저입니다. 사무처 속에 사무처장이 있는 겁니다. 처장은 기구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직제표에 있는 겁니다.

▶정장수 이사

: 사무처 밑에 처장이 있어야죠. 직원인데

▶류건옥 감사

: 사무처라는 것은 기구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 속에 처장이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밑에 사무처가 있는게 아닙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네 알겠습니다.

▶홍석빈 부회장

: 이 문제는 당초 파크골프가 탄생할 당시에는 전무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사무처로 만들면서 사무처장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사무차장이 승진을 이사회에서 시켰습니다. 승진시켜서 그러면 처장 밑에 차장을 두자고 해서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직제를 개편하는데 없앨 수도 없고 이사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류건옥 감사

: 기구와 직제는 다릅니다. 기구표는 이사회, 대의원총회, 회장, 사무처만 있는 겁니다. 직제는 거기에 회장, 처장, 차장이 있는 것이 직제표입니다. 기구와 직제는 다릅니다. 명시 바랍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구표에는 회장님 밑에 처장을 없애고 사무처만 넣겠습니다. 직제표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용 감사

: 표 안에는 처장 1명 차장 1명 직원 2명 고쳐줘야 합니다.

▶류건옥 감사

: 성해용 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원 수를 기록하고 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원은 차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직원 1명입니다. 현원은 처장, 차장, 직원 2명입니다.

▶이금융 의장

: 5명입니다. 5명이 되면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안되면 노조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크골프협회가 커지고 10만 명, 100만 명 되면 직원이 2~30명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3년 인데 그 안에는 직원이 5명~6명은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하고 만약에 늘어나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선 부회장

: 회장님 그러면 정원 5명으로 된 것을 4명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금융 의장

: 정원을 5명을 4명으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외부에서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5명입니다. 5명은 노조에 자격이 있다.

▶이홍선 부회장

: 사무처장은 노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금융 의장

: 사무처는 대한체육회에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장수 이사

: 처장은 아닙니다.

▶이금융 의장

: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네 그러면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정원 총계 4명 소계 4명 처장 1명 차장 1명 직원 2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금융 의장

: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홍선 부회장

: 회장님 인사규정은 제가 미리 메일로 받아서 엄격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금용 의장

: 심의안건에 동의하십니까?

▶이사

: 동의합니다.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재청합니다.

▶이금용 의장

: 본 협회 정관 개정 건에 대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의장님께서서는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다음 안건은 각 위원회 규정을 심의하겠습니다. 처장은 설명 바랍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제3호 안건입니다. 46p입니다.

▶이금용 의장

:심의 전에 이사 및 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5월 18일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판 위원회를 바꿔서 내려 왔습니다. 또 공인인증위원회를 옛날에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도 된다. 그리고 외부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더니 외부인사를 반으로 하라고 엄격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도 자꾸 바뀌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 또는 이사님들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저희 협회는 지금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정을 하셔서 사무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심의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 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장님 말씀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인인증위원회 규정이 대한체육회에서 개정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도 또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이사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그 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서면으로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최동표 이사

: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는 위원회 규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협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목록 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협회가 경기규정이라고 하면 장절편성된 규정이 없다. 작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거의 통과시킬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 부결되고 상정 자체가 안 되었는데 지금 분과위원회 규정만 갖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대회규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경기 규정 저희 협회가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목록 철을 협회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언제 빠른 시간 안에 만들 것인가 누가 만들 것인가 그것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안건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지금 경기규정이나 대회규정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에 올려주셨으면 통과될 것인데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위원회 규정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서면결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준비된 규정들을 같이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금융 의장

: 알겠습니다. 이흥선 부회장님 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

▶이흥선 부회장

: 최동표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면결의 할 때 자료를 받아서 혹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결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최동표 이사

: 네

▶이금융 의장

: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에서는 10개가 있는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인인증위원회라고 규정된 것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학교, 여성 등등 10개가 있는데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11개 회장님이 저희한테 청원할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다. 이사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몰매를 맞아도 같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임기가 2년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처음하면서 2년간 파크골프 회장을 안 하고 쉬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해서 있는 대로 10개의 위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고 이사회 때 회장단한테 상의해서 6개 아니면 4개 등 늘리던가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최동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더 넣고 빼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6개월 후에 위원회를 축소를 시켜서 만들거나 그대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부회장님들과 상의해서 도회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이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흥선 부회장님 그러면 되겠죠?

▶이흥선 부회장

: 네

▶최동표 이사

: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제안한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과위원회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야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운영될 때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목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규정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규정집의 첫 번째가 정관부터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오늘 통과시키는 규정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규정이 장절편성이 안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금융 의장

: 왜 없습니까?

▶최동표 이사

: 이사회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조제숙 부회장

: 규정이 있지만 이사회 통과를 안 시킨 상황입니다.

▶최동표 이사

: 있는데 그것이 경기규정으로 장절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금융 의장

: 알겠습니다.

▶이흥선 부회장

: 경기규정은 경기규정대로 나와 있고 심판규정은 심판규정대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완전한 규정집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금융 의장

: 그러면 대회위원회에서 경기규정집 만들고 심판위원회에서 심판규정집 만들고..

▶조제숙 부회장

: 심판위원회에서 경기규정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2017년도에 이사회가 제대로 안

열려서 ..

▶이경호 사무처장

: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은 안 했지만, 심판위원회 규정 안에 경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동표 이사님 말씀은 그 경기 규정을 별도로 만들자는 말씀이지않아요.

▶최동표 이사

: 아닙니다. 분과위원회 규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목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경기규정이라는 목록, 대회규정이라는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지도자자격검정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연합회 때 규정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을 규정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성영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연합회의 규정이지 협회규정이 아닙니다. 협회에서 의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보안을 해서 협회규정으로 하자는 겁니다. 심의할 때는 저도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최동표 이사

: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용 의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규정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재청합니다.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각 위원회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시험 감독에 따른 여비규정 재정립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선 부회장

: 회장님 저번에 이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했던 규정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재차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금융 의장

: 무엇이든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회를 하면 꼭 경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양평에서 대회를 했는데 심판으로 책정한 돈이 천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천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천막치고 정도가 팔백정도입니다. 저희는 10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스폰 좀 받고 체육회에서 팔백만 원 받고 저희 돈이 오백사십만 원 돈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이 이런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대회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주면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일본을 6월 17일에 가는데 일본은 도지사배 대회를 가도 1등이 2만 원 미만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심판들이 심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숙소를 해주라 아니면 못 하겠다 하면 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해드려야죠. 다음에 대회위원이 있는데 여기는 심판위원장 대회위원장만 숙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위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처장이 다시 낸 것 같습니다.

▶이홍선 부회장

: 저번에 한 것을 또 바꾼다는 것은 1년이라도 지키고 그다음에 변동을 시켜야지 변동만 시킨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이 비용이 적다고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고치고 하면 협회의 위신 또는 위상이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금년은 지키고 내년에 변동을 시키는 것이 맞다 봅니다.

▶이금융 의장

: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이금융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재청합니다.

▶이금융 의장

: 그럼 기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탕! 탕! 탕!

▶이효원 이사

: 지난번과 차이가 됩니까?

▶이경호 사무처장

: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에 의결된 사항은 교통비는 서울 인근은 5만 원 서울을 기준으로 먼 지역은 8만 원 제주도는 13만 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는 5만 원 그리고 대회 때 심판장과 대회위원장은 10만 원 그분들만 숙식제공 그 외에는 수당만 드리는 것으로 의결 났습니다. 2박 3일 대회를 하면 심판위원장만 숙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심판 분들은 각자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융 의장

: 다음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위원회 축소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금융 의장

: 이사님들 도 회장들한테 1년간 나한테 시간을 줘라. 1년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사님들이 10개 위원회를 축소하자고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도 회장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이사님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주시오. 1년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축소를 합시다.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선 부회장

: 회장님 물론 11개 시도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의 현재 회장님의 집행과정입니다. 올해는 보고 앞으로 2년의 상황을 보자고 했으니깐 시도 회장님들께 이해를 시키고 금년도에는 위원장님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엔 금년은 그냥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이사

: 동의합니다.

▶홍석빈 부회장

: 지금 임명된 위원장들이 합쳤을 때는 한 사람 빠지고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고 내년 초에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금융 의장

: 그럼 제가 도 회장님들과 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 상정했더니 1년간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재청합니다.

▶이금용 의장

: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정장수 이사

: 저는 11개 시도 대의원님들이 위원회 축소를 건의했다는 뜻이 위원회가 10개, 20개 있어서 파크골프에 유해가 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서 15개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개가 있어서 파크골프협회에 어떤 해가 있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줄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 계시니깐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아까 그 말은 경북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 뜻도 없고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홍선 부회장

: 사실 이 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워낙 뻔하지 않습니까 지나 전북 회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 위원장이 격이 맞냐 안 맞냐 등의 이야기지 위원회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의장

: 다음 안건은 대한파크골프협회 3급 지도자 시도 위임 건을 상정합니다. 탕! 탕! 탕!  
지금 3급 지도자를 중앙에서 하는데 시도로 위임하자는 겁니다. 설명 바랍니다.

▶이홍선 부회장

: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3급 지도자를 왜 시도로 넘기자고 하나면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300여 명의 3급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중 휴먼 된 사람이 약 25명 활동을 안 하고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앙에는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시도 대회가 전국대회 규모로 선수가 400명씩 참석하는데 심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 3급 지도자 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2급 지도자 현재 2급 지도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2급 지도자이며 저희 협회 스스로 하는 2급 지도자는 없습니다. 또 3급 지도자도 자격증만 따고 연수는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강사 또는 심판을 하면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3급 지도자 시험은 시도로 넘기고 2급 시험은 중앙에서 하고 강사 및 심판 교육문제는 중앙에서 담당해서 확실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급 지도자의 자격시험 문제는 준지도자 시험을 보듯이 개선해 나가면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몇 명 떨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준지도자가 떨어지고 3급 지도자는 오히려 안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경북 운영에는 회원이 3천 명 가까이 등록되어 지장이 없지만, 회원이 적은 시도에는 자격시험을 쳐서 수수료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좀 넘겨주고 중앙은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의했습니다.

▶이금용 의장

: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정장수 이사

: 저는 금년 양평대회 때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첫째 3급 지도자를 시도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의 재정문제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문제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흥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의하게 한다 각 시도에서 하면 회원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앙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3급 지도자 만큼은 중앙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각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일관된 시험이 아닐 겁니다. 그도의 여건에 맞게 어느 분이 출제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는가? 그것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해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내면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다 똑같은 위치에서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은 100명이 봐서 100명이 다 붙는 곳이 있고 100명이 봐서 40명이 된 곳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만큼은 중앙에서 어떻게 다른 것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해야지 저는 3급 지도자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용 의장

: 네 다음 찬성하시는 분?

▶서호석 이사

: 저는 현재 3급 지도자와 준지도자를 시험 응시하는 것을 연도를 늦춰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너무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1,700여 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험 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명으로 잡으면 앞으로 중앙에서 해야 되지 도 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금용 의장

: 3급 지도자 시험을 보면 이흥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정에 상당합니다. 저희가 6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흥선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3급 지도자가 2천명입

니다. 우리 시도협회 도 협회는 우리 회원들한테 사기만 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3급 지도자를 보라고 할 때는 3급 지도자 시험에 합격하면 이것저것 될 것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심판도 못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3급 지도자는 시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도회장님들이 아주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원합격 안 됩니다. 30프로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30프로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하면 재원이 많이 확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회장님들이 원하니깐 도 회장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저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8년도 5월 28일인데 내일부터 막 넘기거나 한 5-6개월 시험을 거쳐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도로 모든 것을 정비해서 넘기느냐 이사님들이 그것만 결정해주시고 이사님들이 7월부터 넘기라고 하시면 7월부터 넘기겠습니다. 아니면 2019년부터 시도로 넘기자고 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빈 부회장

: 찬성 발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3급 지도자 시험이 6월 26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자로 통과되면 6만원 회비 받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하고 금년도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중앙에 돈도 보내고 제주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도로 넘겨서 시도에 중앙에 얼마 보내고 시도에서 얼마 받고 이런 규정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회 때마다 제주도는 별도로 차비가 한 사람 15만 원이면 왕복 30명이면 450만 원을 비행기 표로 씁니다. 그래서 두 세 사람 와서 심판은 제주도에 3급지도자가 있으니 정해주시고 감독만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주도에 450만 원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사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연말까지 해서 제주도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융 의장

: 이홍선 부회장님 찬성하십니까?

▶방정원 이사

: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3급 지도자 검증을 가평과 전북 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개 권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년 전 김세규 회장님이 계실 때는 전국 16개 시도를 1개의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보고 실기를 봤습니다. 해당되는 자기 지역에서 봤는데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최고 많은 숫자가 증폭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검증을 할 때 절대부정을 못하게 했고 실기를 할 때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70%의 합격률이 나왔는데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불합격자를 양성시켜서 협회에서 돈 장사를 하려고 하나 그 말씀을 듣고 검증위원으로서 가슴이 뜨끔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정하게 진짜 실력 있는 3급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웠고 돈 장사를 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다 보니 엄청난 돈을 씁니다. 숙식비용부터 어떤 분은 가평에 200만 원을 쓰고 왔는데 불합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을 봤습니다. 과연 전임집행부에서 진짜 3급 지도자를 양성하

기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100% 합격률을 낸 3급 지도자에 이런 잘못된 양상을 집행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것이냐 저도 분개를 하면서 검증갔다 와서 회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대로 집행부가 진행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을 내리자 저도 시도에 위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3급지 도자는 그에 맞게 검정을 할 때 공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급 스포츠지도사를 작년에 딸 때 이론시험을 10만 명이 봐서 2만 명밖에 합격을 못 시킵니다. 합격률이 30%로입니다. 실기를 76명이 봤는데 26명이 합격했습니다. 30%의 합격률입니다. 구술도 작년에 26명 중에 최초에는 9명이었다가 재시험을 봐서 100%를 합격시켰습니다. 다음에 2급 스포츠지도사는 9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공정성 있는 3급 지도자 제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위임하되 첫 번째 시험 날짜를 전 시도가 동일애 날짜에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사무처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홈페이지에 한시간전에 올려서 인쇄해서 시험 보면 됩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보면 검증요소도 쓸데없는 돈이 삭제됩니다. 이 돈은 시도에서 쓰십시오. 재정이 부족하시면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얼마든지 많습니다. 시험을 공정하게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제가 또 느낀 것은 공부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부를 전혀 안 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부정행위를 몇 차 경고해서 시험지를 뺏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분들께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는게 중요하지 이 사람한테 50-60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문제지를 내려주고 정답과 해설지를 내려줘서 그 해당되는 교육위원장 또는 검정관이 한 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사님들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날짜와 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실기도 마찬가지로. 56타 60타가 중요하게 아닙니다. 또 3급 지도자가 마크도 할 줄 모릅니다. 오비처치도 못하고 타수만 치는 겁니다. 이게 과연 3급 지도자 입니까. 심판이 거기서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전파가 되면 3급 지도자 질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연수는 중앙에서 해야 합니다. 동일한 잣대에 동일한 교육을 시켜서 수준이 올라가야지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데 주 강사 50명을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제 교육을 받고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용 의장

: 네 알겠습니다.

■ 김대광 이사

: 3급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쯤에는 넘기자는 의견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넘기자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부족합니다. 넘길 때는 3급 지도자는 지금 파크골프에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넘겨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예를 들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3급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급 지도자에 관련되는 요령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여주고 내년에 넘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금용 의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제숙 부회장

: 부회장이자 심판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3급 지도자 실기검정에 참가했습니다. 정말 3급 지도자 검정을 시도로 넘겨야 할 것인가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100%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타를 봐달라고 강아지가 사람 따라 다니듯이 합격시켜달라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나면 늘어 죽도록 3대까지 심판을 해 처먹으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타를 봐준다고 3급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 이금용 의장

: 방정원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회장님들도 계시는데 도회장님들이 넘기면 책임이 막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급 지도자를 이홍선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도에 넘기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를 좀 더 육성시키고 시도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파크골프 인원이 저희가 2천 명이 좀 안되는데 시도에서파크골프는 5-6만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 5만원 받아서는 적자입니다. 재정도 늘고 상당히 도움될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에서 도회장님들이 3급 지도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3급 지도자는 2019년도 1월 1일부로 위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사

: 네 동의합니다.

■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 이사

: 제창합니다.

■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용 의장

: 다음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강사 자격증 신설 건을 상정합니다. 처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 탕! 탕!

■ 이경호 사무처장

: 강사 문제는 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에서 강사자격증을 발부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 경북이나 서울은 준비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해서 교육을 못 했습니다. 강사자격 발부 건을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는 강사 자격증을 시도별로 다 다른 교육내용으로 시도 회장님이 발부하지 말고 중앙에서 각 시도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접수를 해서 중앙에서 교육해서 중앙 회장님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시도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서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 이홍선 부회장

: 회장님 강사 요건만 올릴 것이 아니고 아까 3급 지도자 얘기할 때 중앙의 대회에는 심판이 있으니깐 되는데 시도 대회에도 대구나 경북 같은 큰 시도는 전국 대회 못지않습니다. 심판도 교육을 3급 지도자 심판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중앙에서 돈을 받더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2급 지도자를 신설해서 3급 지도자가 이천명 정도 되니깐 2급 지도자를 문체부에 못지않게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보고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도자를 길러서 저희들 파크골프의 위신과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금용 의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 최동표 이사

: 경기도 강사교육을 제가 직접 담당하여 7회차에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시키면서 이전에도 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 정도의 내실을 기하고 결과치를 기대하고 하면 아마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의 강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골프교실 강사를 한다. 또는 어느 곳에 가서 강사 역할을 한다는 협회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도별로 몇 명의 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시키다가 아니라 중앙은 중앙에서 필요한 그 강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가서 그 강사진을 제가 올해 경기도 강사교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시키는 쪽의 프로그램은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강사 관련된 얘기는 시도별로 강사를 시킬 인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을 누가 교육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야 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금용 의장

: 잘 알겠습니다. 강사 문제는 복잡합니다. 3급 지도자를 시도로 넘겼을 때 중앙에서 강사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시도회장님을 도울 사람은 강사밖에 없습니다.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받아서 시도에서 강사분들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는 시도에서 강사자격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문제는 경기도에서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여 각 시도로 대구에서는 하고 있고 경북은 하려다가 못 했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강사제도를 우리 회원님들이 오셔서 시켜서 강사들이 전국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이금융 의장

: 재청하십니까?

■이사

: 네 재청합니다.

■이금융 의장

: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회장님께서서는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융 의장

: 다음 안건은 대한파크골프협회대회 신청 인준 안건입니다. 처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저희가 정기이사회 때 의결된 내용은 양평에서 열렸던 대한체육회장기 장소만 선정했었습니다. 하반기 대회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대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 지도자선수권대회, 어르신가족사랑파크골프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회장기 개최지는 우선 울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지도자대회는 경기도 가평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랑대회는 경북 포항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융 의장

: 우리 협회에서 5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가평에서 하고 부여해서 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울산 회장이 저한테 화해하면서 대회를 이야기해서 울산에서 협조하겠다고 울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330명입니다. 오늘까지 등록된 회원이, 그래서 저는 이사님들께 대한체육회장기, 파크골프협회장기 등 5개 시도에서 하는 대회는 파크골프 회원이 천명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드렸는데 작년에 제주가 504명을 했는데 올해 제주가 68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회장님께 제주에 가서 민원을 받더라도 313명을 더 해주십시오. 천명을 만들어 주시라고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북이 작년에 322명을 했는데 배를 뛰어넘어 606명을 했습니다. 394명을 더 해야 천명입니다. 협회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전북, 제주도를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회원들이 바라는 것이 문체부장관기인데 그냥 줍니까? 5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원이 만육천 명으로는 이기흥회장을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만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원이 만육천 명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대전, 광주를 작년부터 450명입니다. 그래서 전남, 충남, 경북, 제주 회장님들께는 협회에서 돈이 없어도 정말로 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는 꼭 부탁드립니다.

■ 홍석빈 부회장

: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의 총인구가 60만입니다. 그중에 68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천만 인구에 백만 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 대구인가 300만 원씩 줬는데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200명을 올렸는데 상금은 우리한테 줘야 합니다. 제주도는 항상 이사님들과 회장님이 생각 안 해주시면 인구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천명씩 회장 호주머니만 털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 이금용 의장

: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할말이 있습니다.

■ 홍석빈 부회장

: 오늘 신청해도 되겠죠?

■ 이금용 의장

: 네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장님들이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이런 곳은 천 명이 넘었으니 이천 명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330명인데 대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대회를 유고 시킬 것이고 울산은 회원등록도 안 했습니다. 돈만 330명을 보냈습니다.

■ 신원철 이사

: 울산관계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오늘 이사회니 주관할 시도가 있으면 오늘 이사회니 깐 선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금용 의장

: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는 울산으로 했는데 유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동의하십니까?

■ 이사

: 네 동의합니다.

■ 이금용 의장

: 재청하십니까?

■ 이사

: 재청합니다.

■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으로는 전국 지도자 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치신청은 경기도 가평에서 유치신청을 해왔습니다.

■이금용 의장

: 가평 회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영 부회장

: 네 가평입니다. 작년도에 골프장을 개장하여 작년과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개 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어르신골프, 도지사배, 가족사랑 3개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도자대회를 신청한 이유는 가평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도자대회를 하려면 가평군 체육회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시다. 신설보수문제가 작년도에 개장을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오천 평 이상이 되어야 36홀 원칙에 들어가는데 제가 파크골프에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식만 가지고 도회장인 임재홍 회장님과 같이했는데 팔천구백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깐 골프장이 협소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치고 전경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곳에 한정된 공간에 36홀을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집어넣다 보니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완해서 여러 가지 5월 달에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를 밀어주시면 그 안에 잘 보수를 해서 작년도에 오셨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다시 한 번 가평에 대해 기회를 주시는 거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동표 이사

: 언제 유치하실 겁니까?

■김승돈 이사

: 9월 12~ 13일 인가요?

■이경호 사무처장

: 네. 9월 중입니다.

■이금용 의장

: 경기도 가평에서 전국 지도자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동의 하십니까?

■이사

: 네 동의합니다.

■최동표 이사

: 제가 언제 유치하냐고 여쭙봤는데 9월이면 하반기에 시,도별로 대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금용 의장

: 전국 시도에서 대회를 하고 있어도 저희 전국대회가 있으니 그대로 가는 거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이사

: 네 재청합니다.

■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은 어르신가족사랑파크골프대회입니다. 예정은 10월말입니다. 유치신청은 포항에서 해주셨습니다.

■ 이홍선 부회장

: 년 초에 처음에 경북은 전국대회를 1년에 1건씩은 회원 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치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항이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포항을 저희들이 도 협회장기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해보니깐 선수 400명이 들어가서 하니깐 너무 구장이 작습니다. 36홀을 만들기는 했는데 구장이 작아서 그다음에 지금 경북이 5개 시군이 말썽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중에 포항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오늘 신원철 협회장님이 이사로 와서 회장님께 얘기할 겁니다. 구미구장이 45홀이고 넓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떨까 회장님이 원하시는 구장은 9월 20일에 도 지사배를 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경북 도 대회를 한 해에 2개씩 치루기는 거북합니다. 그래서 구미구장에서 치루는 게 어떨겠냐 해서 구미회장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구미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용 의장

: 구미입니까? 구미회장이신 신원철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신원철 이사

: 구미는 구미구장에는 45홀, 도계구장이 36홀, 고와구장 36홀, 선상구장도 36홀입니다. 올해 지나면 동락구장이 36홀입니다. 18홀이 두 군데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미구장은 45홀인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금용 회장님과 시도회장님들, 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 이금용 의장

: 구미회장님 어르신가족사랑파크골프대회 아닙니까. 이사님들이 추천해주실 겁니다.

■ 정장수 이사

: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승돈 이사

: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다 보면 급조해서 했다가 우리 예산을 군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취소되어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사회를 하기 이전에 작년에 예산을 지자체에서 이미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장이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확보가 된 것 같은데 경북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구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봐도 편안하고 넉넉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금용 의장

: 그럼 어르신가족사랑파크골프대회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사

: 네 동의합니다.

■ 이금용 의장

: 재청합니다.

■ 이사

: 재청합니다.

■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 유경자 이사

: 시기를 언제로 잡으셨는지요?

■ 이경호 사무처장

: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에는 10월 31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사랑대회는 3세대가 출전하기가 주말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는 부부와 3세대가 같이 출전을 합니다. 부부는 주말에 하는 것을 싫어하고 3세대는 주말에 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래서 회장님과 말씀 나눌 때는 이제는 3세대를 많이 키우자 그래서 이번에 가족사랑대회는 회장님 말씀이 시상품으로 공이나 시상품을 주지 말고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를 제공하자 그래서 장학증서를 주면 시상도 각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시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는 주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이금용 의장

: 날짜는 어차피 연말입니다. 이사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여성위원회에서 2018년도 파크골프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 말씀해주세요.

■ 유경자 이사

: 제가 여성위원장으로 정식적인 절차가 안 들어가서 취임장은 못 받았지만, 전국에 여성분들로 구성된 대회를 치러보고 싶어서 이번에 추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시에서 흔쾌히 추

정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주시겠다고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 구두적으로 이번  
에 2018년도에 경기를 할 수 있나 없나 여쭙봤더니 고려해보시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9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9월 중순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받았으면 좋은데 안 되서 10월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에서 세계  
소방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같은 문제로 10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들  
여성대회가 훌륭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금용 의장

: 대회는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 달에 2개도 좋다. 제주도에서 대회 좀 많이 열  
어주십시오. 앞으로 여성위원회에서 대회를 많이 한다고 하면 각 시도에서 이사님들이 많  
이 추천하여 많이 가주십시오. 10월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탕! 탕! 탕!

■ 홍석빈 부회장

: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를 하면 대부분 55세 이상 아닙니까? 전국대회 규모로 갔을  
때는 이사님 또는 회장님들이 예산 투쟁을 하세요. 투쟁하면 비행기, 호텔 등 숙박비를 제  
공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부  
해드렸습니다. 중앙 임원도 저희들이 표를 사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랑  
하는 것 보다 각 시도에서도 이런 예산 투쟁을 하면 충분히 자기 호주머니를 안 털어도  
보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참고 말씀드립니다.

■ 심재복 이사

: 중앙 임원님들을 금년 가을에 정선으로 정중하게 모두 다 초청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선에 산림조합중앙회장 배를 9월 12~13일을 잠정적으로 제가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  
고 했는데 보니까 일정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정 할 겁니다. 정식으로 다시 초청하겠지  
만 정선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작은 동네에서 대회를 하고자 하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용 의장

: 감사합니다. 이사님 꼭 초청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 사무처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용 의장

: 지금까지 논의한 안건 외에 다른 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처장은 기타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 탕! 탕!

■ 이경호 사무처장

: 기타 안건으로 이사님들께는 배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1월달에 의결을 할 때  
각 위원회에 지원금으로 200만 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세부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원  
회에서는 회의를 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회의 내용, 안건등을

사무처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결과 내역을 보내주시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님들이 그것을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 사무처가 행정적으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200만원을 다 소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00만 원에 한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오니 집행을 해달라고 할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안건입니다.

■ 이금용 의장

: 사실 위원회에 돈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느 위원회는 밥을 2만원을 먹고 어느 위원회는 못 먹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지원금은 이홍선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는 대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행정비..

■ 이홍선 부회장

: 사무국장 행정비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사무국장 행정비로 100만 원씩 해서 사무국장한테 바로 넣어주는 거였는데 올해 예산 편성에 시도협회 운영비 보조로 보내 주기로 했었습니다.

■ 이금용 의장

: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국장 행정비 시도협회장기 대회 시 100만 원 지급 시도회원 증가 시 인센티브 부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200, 300, 500이 되었든 협회에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명 미만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북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 류건옥 감사

: 서운합니다. 배를 증원을 했는데 작년 규정을 보면 배를 늘리면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마음을 바꾸시니 섭섭합니다.

■ 이금용 의장

: 사무국장 요청으로 3급 지도자 응시료는 예전에는 6만원을 받으면 시,도 행정비로 1만원 돌려주고 식사 지원을 안했는데 지금은 점심식사를 제공하니 어쩔 수 없이 돌려 드립니다

■ 이금용 의장

: 탕! 탕! 탕! 이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미비한 점은 잊어버리시고 파크골프협회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를 마칩니다. 탕! 탕! 탕!